

지역 소식통



완주군, 초·중·고교 대상 찾아가는 연극 공연 진행

완주군이 지역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극 공연을 진행한다. 16일 군은 2017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 문화예술에 관한 '한옥마을 아트홀 및 '뮤지컬 수'가 선정돼 총 32개교에서 공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은 완주교육지원청과 완주군청이 함께 지원하며 '완주로컬에듀(창의적 교육특구) 사업 중 하나이다. 특히 이 사업은 관련 분야 전문극단이 지역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직접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10일에는 한옥마을아트홀이 비 그치고 무지개 뜨다 라는 연극을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정희정 교육이동복지과장은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은 단순히 공연이나 강연을 넘어 학생들로 하여금 공연예술에 직접 참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전문적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향후 진로탐색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완주=이종복기자

김제경찰서, 이륜차 사고 예방 홍보

김제경찰서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김제소재 이륜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경찰서장 서한문을 전달하며 이륜차 사고 예방 홍보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제시 관내 이륜차 등록대수는 2017년 4월말 기준 8,781대로 이륜차 소유자 대부분이 노인층이어서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올해 현재까지 김제시 관내 7명의 교통 사망사고 중 3명이 이륜차 운행 중 사망 매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제경찰서는 교통안전 및 전 직원이 이륜차 소유자 8,781명 모두에게 경찰서장 서한문을 전달하며 매일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황대규 서장은 앞으로 서한문 전달 홍보 뿐만 아니라 이륜차 안전관리 기간 인 2017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확립을 위해 홍보와 집중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륜차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필히 안전모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

'여행·과학' 주제로 만든다

10월 실시설계 착수 내년 말까지 건립 마무리

완주군이 내년말까지 건립되는 이서 혁신도시 공공도서관을 '여행, 과학'이란 컨셉 하에 조성하기로 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은 혁신도시 인구급증에 따라 공공도서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건립된다.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일원으로 부지면적 1,850㎡, 건축연면적 2,800㎡,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공도서관은 빠르게 오는 10월 실시설계에 착수한 뒤, 내년 말까지 건립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군은 공공도서관이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교육·문화·소통의 공간이자, 4차 산업혁명과 과학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여행, 과학'을 컨셉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공공도서관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네이버도서관, 꿈두레도서관 벤치마킹을 진행했다.

벤치마킹에 참여한 완주군청 문화예술과, 경영개발과, 제안공모 선정 건축사는 지난 3월 현대카드 트래블



라이브러리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어 도서관 곳곳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시스템을 설치해 다양한 정보를 시간·장소에 구애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 장벽 없는 웹을 경험했다. 또한 모두가 사용하는 웹을 만들어가는 공간을 조성한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도서관을 벤치마킹했다.

군은 오는 19일 도서관 및 건축분야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및 착수보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종필 문화예술과장은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을 전복을 대표하는 소품·첨단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각 도서관의 장점과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기자

김제시, 쌀가공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

지평선누룽지 등 사업대상자 선정

김제시 유통식품과(과장 고규근)는 16일 농업기술센터 상록관 소회의실에서 유촌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사업 신청업체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쌀가공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농정심의회를 갖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날 심의회는 쌀가공식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3개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리로, 심의위원들은 신청방법의 지원자격,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도록 만전을 다했으며 ▲쌀가공식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지평선누룽지(유) ▲R&D 및 컨설팅의 2개사업에 하늘산남포영농조합법인(병동밥 등), 오성제과(누룽지 등) 등 쌀가공식품업체 11곳에서 연간 7,200톤의 쌀을 원료로하여 '병동밥 및 누룽지 등' 쌀가공식품을 생산 판매하여 470억의 매출액을 올리고

/김제=곽노태 기자

부량면사무소 직원들, 농번기 일손돕기 구슬땀

김제시 부량면(면장 임정업)에서는 16일 관내 갑자 출하가 한창인 농가를 찾아서 상자포장등 부족한 일손을 도와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농업의 기계화가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밭농사 등 아직도 사

람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들은 많다. 부량면장은 영농현장을 방문하건중 인부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포고 마을의 한 농가를 발견하고 직원 7명과 함께 일손을 도왔다.

임 면장은 "농촌일손돕기로 부족한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현죽유물전시관 개관

국내 유수기업인 성원제강 서원석회장이 고향김제에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933점을 기증하고 있는 유물933점을 기탁하여 화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16일 현죽유물전시관 조성이 모두 마무리되고 개관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김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개관식 행사에는 서원석회장의 장녀이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서혜경씨가 축하공연을 하여 뜻깊은 자리를 더욱 빛냈다.

현죽전시관은 김제 문화예술회관 내부 2층 규모로 서원석회장이 기증한 도자기류와 민속품류, 회화류 등을 비롯 가구를 담고 성공신화를 이룩한 서원석회장의 일대기에 대한 기록이 전시되어있어 찾아오는

이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많은 귀감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견식김제 시장을 비롯하여 유물기증자인 서원석회장,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백영훈원장, 정희은 현죽김제추진위원회 위원장, 정호영 전북도의회 부의장, 박두기 김제시의회 운영위원장 및 김제시위원들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였다.

이날 이견식 김제시장은 "서원석회장은 가난과 역경을 이기고 성공신화를 이룩한 인물로 그의 고향사랑에 감사한 마음이며,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느 때든 찾아와 문화향유를 누릴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공유토지분할 3년간 연장 운영

김제시는 오는 5월 22일 만료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기간을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법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돼 오는 5월 22일에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김제시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3년간 특례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은 그동안 분할제한면적, 건폐율·용적률 등에 못지않게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한해 관련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 뒤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등기할 수 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2인 이상이 1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가운데 본인 지분 토지에 1년 이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이며, 분

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다. 또한 공유토지의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하고 있으나 공유자간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편의를 고려해서 운영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기간이 연장된 만큼 많은 분들이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농기계 사고방지 예방 홍보

완주군이 벼 이앙, 마늘·양파 수확 등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을 지키고, 도로 주행시 안전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군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는 본격적인 농사준비로 분주해지는 5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도로 운행이 잦은 경운기가 전체 사고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농기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농기계 사용 전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농작 시 무리하게

작업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도로 운행 시에는 반사판이나 경광등을 부착한 후 도로 맨 우측 가장자리를 운행하며, 운전자의 동승자 탑승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운기 및 트랙터에 2016년 560대, 올해 150대에 등화장치를 공급했다.

/완주=이종복기자